



2026

# 우체국 문화전

접수번호

기입 금지

## 제34회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글짓기 대회

|      |              |
|------|--------------|
| 응모구분 | 초등고학년(4~6학년) |
| 제 목  | 잃어버린 편지를 찾아서 |

식은땀을 흘리며 번쩍 눈을 떴다. 심장이 방망이질 치고 있었다. 머리맡에 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책을 더듬어 품에 안고서야 간신히 꿈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2086년, 종이 편지와 우체국이 사라진 지 30년이 흘렀다. 우리는 뇌에 삽입된 칩을 통해 0.1초 만에 생각과 이미지를 전송한다. 주소도, 우표도, 집배원도 필요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효율의 시대다. 아니, 정말 ‘완벽’ 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과거 인간들은 서로의 뇌가 연결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진 이에게 마음을 전하는 기묘한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종이 편지에 ‘기다림’을 담았던 것이다.

우체국이 사라지고 소통의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진 지금 인류의 뇌는 과부하에 걸리기 시작했다. 생각하는 즉시 전송되는 메시지에는 필터가 없었으니까. 미움과 분노, 충동적 감정들은 정제되지 못한 채 행성을 뒤덮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완벽한 통신망을 만든 인류는, 상대의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갑옷으로 철저히 무장한 채 스스로 고립되었다. 완벽함은 거대한 속임수였던 것이다. 과학 기술이 가져다 준 편리함과 효율성 뒤에는 온기 대신 냉기만이 있었다. 몇 번이고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며 써 내려간 종이 위의 글자들, 그것이 배달되는 동안의 설렘과 기다림, 그 시간의 여백이 사라진 빠른 소통은 오히려 인류를 지치게 하고 단절을 낳았다. 더 끔찍한 건 모든 배송 서비스가





2026

접수번호

# 우체국 문화전

## 제34회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글짓기 대회

응모구분

제 목

대기업의 유료 드론으로 넘어가면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더욱 고립되었다는 사실이다. 인공지능 드론은 오직 비용이 지불된 좌표로만 배달할 뿐,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의 외로움과 생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매일 아침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 홀로 사는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며 안부를 묻던 집배원의 온기는 이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꿈에서 깨어난 나는 깨달았다. 빠른 것이 언제나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을, 효율적인 것이 반드시 인간적인 건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우리가 우체국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단지 배송 서비스 하나를 잃는 것이 아니다. 기다림 속의 인간다운 온기와, 단 한 사람의 소외된 이웃도 포기하지 않겠다던 공동체의 약속을 함께 잃는 것이다. 창밖을 보니 새벽 빛 사이로 매일 보던 동네 골목길이 보였다. 꿈이라서, 무서운 미래가 아직 오지 않아 다행이다. 나는 언젠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처럼 멋진 소설가가 될 것이다. 그는 여덟 살에 처음 소설을 썼다. 열세 살의 난 비록 어른은 아니지만, 펜 끝으로 세상을 조금은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폰 터치 몇 번에 쉽게 감정을 전송하는 요즘, 편지지에 눌러쓴 손 편지의 위대함을 알려주고 싶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시간의 설렘과, 폭우와 폭설에도 묵묵히 온기를 배달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이제부터 진짜 내 소설이 시작된다. 제목은 이미 정해졌다. ‘잃어버린 편지를 찾아서’

